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2차회의

일시:2014년 4월 21일 장소:광주일보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가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강대석·김경태·문방진·임효택·이묘숙·이철갑·조미옥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여덟 명이 참석했다. 독자위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겪은 희생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온 국민이 실의에 빠져 있는 이때 광주일보가 지역민에게 정확한 현지상황과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트라우마 극복할 ‘희망적인 기사’ 발굴에 힘써달라”

김경태 (광주은행 홍보실장)



상인 인터뷰·장바구니 물가
체감 경제기사 더 실어주길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기업 홍보성 기사 많아
공정성 유지 더 노력을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선거기사 시도지사만 있고
교육감 후보 적어 아쉬움

이묘숙 (송은갤러리관장)



3월 14일 장애가족 소개
사회 다양성 본 뛰어난 기사

▲김경태=광주일보가 창사 62주년을 맞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 광주일보가 세월호 보도는 물론 그 이외의 부분에서도 62주년이란 전통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가장 먼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기사를 주문하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지만 지역별로 체감하는 수준은 서로 다르다. 통계자료를 통한 기사도 중요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인터뷰, 장바구니 비용 등 독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기사가 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광주일보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 내 우량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주길 바란다. 지역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은 어렵더라도 지역 언론이 꼭 해야 할 역할이다.

▲강대석=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졌고, 모든 이슈가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언론은 다가오는 6·4 지방 선거 같은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된다. 광주일보가 유권자들이 헛갈리기 쉬운 선거법에 관한 정보를 기사로 꾸준히 보도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독자가 기사를 보며 정보를 얻는 것은 그것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기사는 보도라기보다 홍보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특히 일부 대기업에 관한 기사는 객관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제공받은 자료에 의존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신문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독자와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 사이에서 광주일보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철갑=광주일보가 언론 본연의 공정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역없는 취재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소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육감은 미래 세대 교육을 책임지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막중한 자리다. 독자들에게 어떤 교육감 후보들이 있고, 그들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는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후보들의 거시적인 공약을 보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유권자들이 정말 궁금해 하는 날카로운 물음을 던져주길 바란다.

▲이묘숙=선거 때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된 후에는 흐지부지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과 인터뷰할 때 공약에 대한 재검토를 어떻게 마련하고 실천할지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한가지 측면만 보지 않고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는 게 언론의 기본이라고 본다. 지난 3월 14일 사회면 기사는 그러한 역할에 충실한 기사였다. 이날 기사는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극명한 선택이 소개됐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일가족, 반면 순찰차를 타고 싶어하는 장애 아이를 위해 함께 전곡을 여행하고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독자이자 어머니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한 기사였다.

▲임효택=모든 언론이 침몰한 세월호 상황과 사망자 숫자를 연일 보도하면서 국민 전체가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렇듯 독자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사를 발굴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예를 들어 내년에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지역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국제 스포츠대회인 만큼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회가 고공추진을 얼마나 만들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지역민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분석하고 알리는 기사가 필요하다. 내년으로 다가온 대회를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리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이 해체되고 거리로 내몰리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과거 학교폭력이나 체벌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가난과 가족간 불화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중이 크다.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학교 교감선생님이 자살한 것도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것을 학교로 떠넘기는 사회분위기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가정, 사회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조미옥=수학여행에서 사고가 났다고 수학여행을 폐지하고, 대학생 MT에서 사고가 났다고 대학생 MT를 폐지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를 예방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지역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언론이 제시해주길 바란다.

지난 4월 14일 사회면 '시간선택 교사제, 교육력 약화·비정규직 양산'이란 제목의 기사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시간선택 교사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잘 지적했다. 일반 독자들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시간선택 교사 등 교육현장 현안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보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신문을 통해 세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한국신문협회가 지난 7일 제58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시대가 빨라질 때, 신문은 깊어진다'를 표어로 발표했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정보를 쏟아내고 있지만 신문이 가진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학생들이 신문을 보며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사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문방진=언론은 세월호 사고 같은 대형 참사를 보도할 때도 냉철한 분석으로 또 다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세월호 같은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에 대처하는 자세다. 침몰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의 생명을 뒤로한 채 제 한몸 살리기 위해 급급했다. 또한 수학여행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학여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수학여행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학교 입장에서는 수학여행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삼풍백화점부터 세월호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급하다.

▲김윤하=광주일보 창사 62주년을 앞두고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를 감안해 차분하게 준비한 창사특집 지면을 높게 평가한다. 또한 지난 17일자 사회면 세월호 사고 현장 르포 기사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취재기자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같은 날 1면과 6면에 실렸던 도표나 그래픽은 글씨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올해 들어 광주일보가 다양한 그래픽과 표를 많이 사용하면서 기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 기사 전부를 읽을 수 없는 독자들이 표와 그래픽으로 한눈에 알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를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교감)



광주 U대회 준비 만전을
적극 알리고 힘 모아야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교사)



학생들 신문보고 공부
교육에 활용할 기사 늘려야

문방진 (변호사)



세월호 대형참사 보도
안전불감증 크게 부각을

김윤하 (전남대병원 병원장 직무대행)



그래픽·표 기사 이해 도움
글씨 키워 알아보기 쉽게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김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 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정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면적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도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담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웅벽설치 매 3억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돌변 배 과수원(일부 대지 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1억7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 재 관

급히구합니다

- 1)빌딩 : 현금8억,15억,30억 손님 각각 대기중 바로 계약들어옵니다
- 2)상가 주택 : 현금2억보유자3명, 현금5억보유자7명대기하고있습니다
- 3)점포 : 푸에스팅1명,갈비집3명,중화요리2명, 패션의1명, 노래방2명등 많은분들이 대기중입니다

다음카페(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 해 보세요)
D+M 즐거운부동산세상
급매부동산,개발정책,생활법률,취득양도관련
세금유령의료전문가들의 강좌등 다양해요

[급 매]

- 1)총장로 원룸대165㎡ 급매297,000(보증1억 월510)별도 월14%대 수익
- 2)롯데백화점인근 모텔 대236㎡건185㎡ 룬25 급매7억원(건축비도안됨)
- 3)예술의 거리 입구 대188.4㎡ 4층 건물 대2억9천보천 별도건장가 4억천

이밖에도 많이요 =맞춤 서비스합니다

[급 임대]

- 1)식당1층33㎡ /66㎡/120㎡ 등(최고요식)급매물 확보중
- 2)다용도및사무실 대로변1층,지하,3층,10층등 평수별,금액별 좋은 매물 다량보유중입니다
- 3)원룸,투룸 =죽임,싸고,깔끔한 매물 다량 보유

부동산이러면 지역,종류,금액 상관 없이 무엇이든지 연락주세요
7일 이내에 [가부명사] 처리하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동부소방사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년6억 收益

모텔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픈,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물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용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